

명창들과 소리여행



남혜성

판소리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 '판소리 유파 대제전' 오늘 순천문예회관

'인간문화재 순천에서 판을 벌이다.'
판소리, 가야금 병창, 대금 연주, 전통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순천에서 대규모 공연을 갖는다.
올해는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문화유산 결작'으로 선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현재 우리가 만나는 판소리는 17세기 말에 생성된 후 청중들의 기호를 반영하고,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새로운 유파가 만들어지고, 그 소리를 배운 명창들은 자신만의 소리를 재창조했다.

(사)한국판소리보존회(이사장 송순섭)가 주최하는 '판소리 유파 대제전'(9일 오후 3시 순천문예회관)은 판소리 지정 10년을 기념해 마련한 무대다.
내로라하는 명창들은 이날 공연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들이 갖고 닦은 '소리'를 들려준다. 송흥록·송광록·송우룡을 태두로 한 '동편제'와 박유전에서 시작된 '서편제'가 송만갑·유성준·정창업·정재근·김연수·박봉술·김소희 등 명창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현재의 소리로 자리잡아 왔는지 각 유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공연이다.

신영희·송순섭 씨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판소리·가야금 병창 등 '국악의 대향연' 파리에서도 등재 기념 공연 열려 호평

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판소리는 지난 1964년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로 지정됐다.
이날 공연에는 올해 새롭게 무형문화재가 된 신영희씨를 포함, 소리 부문 보유자 6명중 5명이 출연한다. '심청가' 보유자 성창순(광주)을 비롯, '수궁가'의 남혜성(광안), '춘향가'의 신영희(진도), '적벽가'의 송순섭(고흥), '홍보가'의 박송희(화순)씨와 이번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춘향가'의 성우향(화순)씨까지 보유자 6명은 모두 광주·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가야금 병창의 안숙선, 대금의 조창훈, 무용의 임이조씨 등 기악과 무용 부문 인간문화재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각 국악경연의 판소리 대통령상 수상자인 주순자·양명희·주소연·염경애씨 등이 민요를 들려준다. 고수는 송원조·박근영씨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판소리 유네스코 등재 1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4~5일 프랑스 파리 세계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에서 진행한 한국예술 특집프로그램 'Facettes de l'art Coreenne'에서 송순섭 명창이 판소리 '홍보가'를 완창했다.
이날 공연에는 유네스코 주요 관계자, 세계적인 민족음악학자, 현지 판소리 애호가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송순섭



신영희



성창순

섬진강에 부는 알프스 메아리

전국요텔클럽축제 12일 곡성레저문화센터

'요들레히~' 경쾌하고 흥겨운 대자연의 울림 전국요텔클럽축제가 오는 12일 곡성에서 열린다.
'섬진강에 부는 알프스 메아리'를 주제로 오후 5시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광주연시안요텔클럽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마산 등 전국요텔협회 산하 전국 8개 클럽, 1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10여대의 알프스호이 오프닝송으로 공연개막을 알리고 전국 8개클럽 회원 50여명이 '저산

에 저너놓지면', '알프스 축제'를 합창한다. 이어 각 클럽별로 준비한 '숲의 요텔', '쿠쿠 요텔', '요텔 카사노바', '눈은 다시 녹는데' 등 다양한 요들송을 들려준다.
알프스호이 아코디언, 오르겔러, 카우벨, 우드스프린, 레제 등 알프스지역의 다양한 민속악기 연주도 볼거리다.
공연을 주관한 (사)도깨비마을사람들 산하 중창단 '노래개비아이를'도 요들동요 메들리를 들려준다. 문의 011-640-0569.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재즈로 듣는 영화속 명곡

공연 순수, 내일 기독교문화대 오웬기념각

알프스호이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고전영화와 함께 감상하고 아름다운 영화음악을 재즈로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이 마련된다.
문화예술전문단체 '공연 순수(대표 정현기)'는 10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문화대 오웬기념각에서 '알프스의 소리를 듣다 part5: 잊혀진 시간과 마주하다II'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찰리 채플린, 해롤드 로이드와 함께 할리우드 무성 코미디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버스터 키튼의 걸작 무성영화 '셜록 주니어'를 상영하고, 그에 맞춰 즉석 피아노 연주와

효과음 등을 삽입해 새로운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달 '알프스의 소리를 듣다' 4번째 공연에서 무성영화에 음악을 입히는 독특한 공연을 선보인 '공연 순수'는 관객들의 요청으로 10일 알코르 공연을 개최하게 됐다.
또 이날 공연에는 '너는 내 운명', '씨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피노키오' 등 영화 속 명곡들을 CLIMAX, CREAM TRIO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 듣는 자리도 준비돼 있다. 문의 070-4240-0976.
/이보람기자 boram@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해 4월 중순, 대구 골목길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 시청에 전화를 걸었다. 대구시는 '근대골목투어'(5개코스)라는 타이틀로 매주 토요일 정기투어 참가자를 사전에 접수받는다. 그런데 담당자로부터 "다음달에 참가하면 어떨까요?" 답변을 들었다. 이유인즉슨, 비슷한 시기(4월20일~5월4일)에 전국에서 청소년단체관광객 1만 여명이 찾는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단체투어와 '섞이면' 쾌적한 여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친절한 배려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첫은 근대

골목 투어라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결과 첫해 150명이었던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8월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2013년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에 근대골목이 있다면 광주에는 양림동이 있다. 양림동은 대구보다 많은 선교사 사택과 교회, 이장우 가옥 등 100년 전의 근대문화가 숨 쉬고 있는 보고다. 하지만, 그 위상은 사뭇 다르다. 물론 '양림동 역사마을만들기'라는 대형프로젝트가 진행중

양림동의 추억

골목투어는 부러움 그 자체였다. 별 볼일 없을 것 같은 낡은 골목길에 스토리텔링과 어울려져 사립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소통하는 관광명소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계산성당~동산 선교사 주택~이상화 고택(제2코스) 등 박제된 공간들이 '이야기 백화점'으로 변신했다. 특히 민족시인 이상화 고택 앞에서 문화유산해설사가 들려주는 '스토리'는 잔잔한 재미를 주었다.
근대골목투어는 대구시가 '공들이고 있는'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01년 소방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철거위기에 처한 이상화 고택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계기가 됐다. 이후 중구 근대골목의 옛 이야기들을 되살리고 점으로 흩어져 있던 역사·문화 자원들을 선으로 연결, 근대

이지만 양림동의 가치를 알리는 마케팅작업 등은 미진하다. 연중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대구와 달리 인적이 드물다.
마침 양림동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2013 국토님 양림' (18~20일)축제가 양림동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양림동에 산재한 근대유적과 문화유산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다채롭게 조명한다고 한다. 가을이 가기 전에 양림동 골목길을 걸으며 100년 전의 시간여행으로 떠나보자. 이삼전심일가. 이를 전 '양림동 화가' 한희원 선생이 카톡으로 KTX 매거진 10월호에 소개된 양림동 기사를 보내왔다. 오랜만에 양림동 다현다방(김현승 시인의 호를 딴 무안카페)에서 한 선생과 커피 한 잔 해보자.
(편집국 부국장·문화선임기자)

새싹 동인지 2호 나왔다

새싹 선교회(대표 김선남)에서 발행하는 새싹 동인지 2호 '행복을 위한 날개'(서진출판사)가 나왔다. 2012년 9월에 창간호가 나온 지 1년여 만에 출간된 이번 호에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이 수록됐다.
성기조, 이현수 회원의 초대시를 비롯 곽현덕, 김문호, 김미애, 김선남, 김정래, 박종현, 변숙래, 성석현, 이양섭, 이애경, 이옥천, 조미애, 황명희 회원의 시가 실렸다. 수필에는 서성애, 오주영, 임광수 회원의 등 회

원의 작품이 담겨 있다.
새싹 선교회 김선남 대표는 "지난 여름은 몹시도 더워서 힘들었던 날이 많았지만 틈틈이 원고를 모아 편집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하기에 매우 즐거웠다"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기자 skspark@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험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서비스표등록증

5-18낙지

체인점 문의 **061-375-2383**
HP. 010-6656-0002